

韓國人の 표준生命表



柳 東 俊

慶熙医大 교수
本協会弘報理事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1990년 2월 23일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발표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에 의하면 영아사망률 감소, 출산력의 감소, 醫療 수준向上 등으로 국민의 平均壽命은 과거에 비하여 계속 현저하게 연장되고 있다. <표1 참조> 이같이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재의 나이에서 보다 더 살수 있는 기대(평균)餘命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제 生命表를 주요 부문별로 대략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으나, 70년에 63.2세, 79년에 65.8세, 89년엔 70.8세로 약 30년 사이에 20세 가량이 연장되었다.

남녀별로는 89년 기준으로 남자 66.9세, 여자 74.9세로 女子가 男子보다 8세나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평균수명 차이는 66년의 4.3세, 80년의 6.4세에 이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89년엔 세계최고 차이인 프랑스, 핀랜드의 8.1세와 비슷해진 것이다.

우리의 평균수명 70.8세는 국제적으로 비교할때 中國의 69.4세와 비슷한데, 日本의 78.2세, 스웨덴의 77.1세, 프랑스의 75.6세 등에 비하면 아직도 많이 낮은 편이다. 아시아에선 필리핀이 63.4세, 인도가 57.8세로 우리보다 낮았다.

평균수명 연장속도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은 아직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平均壽命의 연장(증가)속도는 지난 70년대 이후 연평균 0.5세로 전세계평균 0.2세보다 월등히 높아 선진국과의 평균수명격차가 앞으로 급속히 좁아질

발달에 따라 嬰兒死亡率이 급격히 감소한데 크게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됐는데, 앞으로는 成人病의 유행률과 사망률의 증감여부가 이 평균수명의 증감속도를 크게 좌우할 것으로 예측된다.

死亡率 추이

평균수명이 증가(연장)한다는 것은 뒤집어 말해서 死亡率이 해마다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수는 지난 70년대에 9.4명이었으나, 75년에 7.6명, 80년엔 7.4명, 85년엔 6.2명, 89년엔 5.9명으로 감소했다고 한다.

금년에는 사망률이 5.8명으로 더 떨어질것으로 예상되나, 올해를 고비로 90년대는 정체현상을 보이다가 노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오는 2000년엔 6.3명, 2020년경엔 10명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사망률추이를 연령별로 보면 남녀 모두 영아, 유아 및 저연령층에서 사망률의 하락세가 현저해진다. 특히 생후 1년 이내의 사망을 나타내는 영아사망

률의 경우 1천명당 일본 2.2명, 캐나다 2.4명, 프랑스 3.4명, 대만 4.0명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6명이거나 된다.

또 50대, 60대 남자의 경우도 외국과의 격차는 비슷한 수준이다.

이들 U.N. 모델의 생명표상으로 평균수명이 비슷한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특히 40대이후의 남자사망률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심층적인 원인조사와 대책이 특히 成人病관리대책에서 매우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年齡別 기대餘命 추이

모든 각 연령층에서 평균(기대)여명이 높아지고 있는데, 지난 70~79년보다 80~89년의 10년간 증가폭이 훨씬 커서 소득수준향상과 함께 期待餘命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후 1년미만에서의 기대(평균)여명은 바로 평균수명과 일치하는 것이다.

한 예로 89년 현재 20~24세 연령층의 기대여명(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을까 하는 여명)은 남자가 48.5세, 여자가 56.5세로 나타나 있다.

生殘率

또 생잔율이라는 것이 있는데, 生殘率이란 현재의 연령에서 특정나이에 이를때 까지 살아남을 확률을 말한다.

현재 태어난 출생자중 60세까지 생잔율은 남자가 74.5%인

<표 1> 경제기획원발표: 한국인의 표준생명표 (단위: 歲)

나이	기대여명		나이	기대여명	
	남	여		남	여
0	66.92	74.92	40	30.34	37.51
1	66.66	74.76	41	29.47	36.58
2	65.76	73.85	42	28.61	35.66
3	64.84	72.92	43	27.77	34.74
4	63.90	71.98	44	26.94	33.82
5	62.96	71.03	45	26.12	32.91
6	62.01	70.08	46	25.31	32.01
7	61.06	69.13	47	24.51	31.11
8	60.10	68.16	48	23.72	30.21
9	59.14	67.20	49	22.94	29.32
10	58.18	66.23	50	22.16	28.43
11	57.21	65.26	51	21.40	27.55
12	56.24	64.29	52	20.65	26.67
13	55.28	63.32	53	19.90	25.80
14	54.31	62.35	54	19.16	24.94
15	53.35	61.38	55	18.43	24.08
16	52.38	60.41	56	17.71	23.23
17	51.42	59.44	57	17.00	22.39
18	50.47	58.47	58	16.30	21.55
19	49.52	57.51	59	15.60	20.71
20	48.58	56.54	60	14.92	19.89
21	47.64	55.58	61	14.25	19.08
22	46.70	54.62	62	13.59	18.28
23	45.77	53.66	63	12.96	17.48
24	44.84	52.70	64	12.35	16.70
25	43.92	51.75	65	11.76	15.93
26	43.00	50.79	66	11.18	15.18
27	42.08	49.84	67	10.62	14.44
28	41.16	48.88	68	10.07	13.73
29	40.25	47.92	69	9.55	13.03
30	39.34	46.97	70	9.04	12.36
31	38.43	46.01	71	8.55	11.70
32	37.52	45.06	72	8.07	11.06
33	36.61	44.11	73	7.61	10.44
34	35.71	43.16	74	7.16	9.83
35	34.80	42.21	75	6.72	9.24
36	33.90	41.26	76	6.30	8.68
37	33.00	40.32	77	5.91	8.14
38	32.10	39.38	78	5.56	7.62
39	31.22	38.44	79	5.26	7.15
			80	5.01	6.60

40대이후 成人病管理对策이 주요爭点임을 示唆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엇보다도 醫療施惠의

률은 지난 70년 1천명당 51명에서 89년 11명 수준으로 매우 뚜렷하게 감소했다. 이는 가족계획과 수태조절에 따른 出産 감소와 의료기술 발달로 早産兒도 생존확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특히 40대 이상의 사망률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속도가 느린것이 아주 특징적이다.

실례로 40~44세 연령층의 남자는 지난 70년 1천명당 7.1명에서 79년 6.3명, 89년 5.6명으로 줄었으며, 45~49세 연령층도 70년 9.8명에서 89년 8.6명으로 감소추세가 매우 더디었다.

우리나라의 사망률은 아직도 일본, 캐나다 등 선진국보다 높은 편인데, 특히 40대 이후의 남자사망률은 선진국등의 外國과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가장 주목되는 40~44세 연

대 비해 여자는 87.6%로 13.1% 포인트나 높다.

현재 40세인 사람이 60세까지 살아남을 확률도 남자는 80.1%, 여자는 91.4%로 역시 여자가 높다. 이와같은 생잔율의 남녀차이는 바로 40대이후 사망률에서 남녀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夫婦의 기대여명

남녀를 불문하고 자신보다 나이가 적은 상대와 결혼했을때 夫婦생활을 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중 한쪽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사람의 여명에는 직접 영향이 없고 모든 부부에서 이혼이 없다는 가정하에 男女, 연령별, 기대여명으로 추론한 결과라고 한다.<표2 참조>

가령 현재 35세인 남자가 5살아래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 부부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기간은 32.3년이며, 동갑과 결혼했다면 31.1년, 5세 많은 여자와 결혼했을 경우라면 29.7년으로 줄어든다고 한다.

結 論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지속적으로 연장되고 있으나 40대 이후 연령층의 특히 남자의 사망률이 세계 주요 각국과 비교해 볼때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는 우리나라의 40대 男子가 여러가지 면에서 매우 어렵게 살아가고 있음을 시사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조사와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이다.

또 평균수명의 연장은 老齡인구의 증가도 함께 의미하고 있어 慢性·退行性疾患, 즉 成人病의 有病率과 死亡率도 앞으로 더욱 높아질것으로 전망되므로, 成人病관리대책과 老人福祉대책을 더욱 서둘러 노력해야 할 것이다.

평균수명 추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은 50년대 말에는 52.4세에 불과했

연령	남자여명	부부의 여명(남자기준)		
		婦人이5살 더적을 때	夫婦연령이 같을 때	婦人이5살 더 많을 때
20	48.56	45.77	44.56	43.03
25	43.90	41.22	40.03	38.52
30	39.33	36.76	35.59	34.07
35	34.80	32.36	31.19	29.72
40	30.30	27.97	26.85	25.45
45	26.09	23.90	22.82	21.51
50	22.13	20.10	19.09	17.84
55	18.40	16.56	15.60	14.45
60	14.87	13.23	12.35	11.31

연령	남자여명	부부의 여명(여자기준)		
		男便이5살 더적을 때	夫婦연령이 같을 때	男便이5살 더 많을 때
20	56.54	47.75	44.56	41.22
25	51.74	43.03	40.03	36.76
30	46.97	38.52	35.59	32.36
35	42.20	34.07	31.19	27.97
40	37.50	29.72	26.85	23.90
45	32.90	25.45	22.82	20.10
50	28.42	21.51	19.09	16.56
55	24.05	17.84	15.60	13.23
60	19.87	14.45	12.35	10.27

최소형 혈당측정기

《글루코스코트-II》

GT-4320

혈당검사는 식사, 운동, 투약등 조절에 큰 도움을 주며 합병증 예방을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사용법이 간단하여 쉽게 검사할 수 있으며 한방울의 혈액으로 가장 폭넓게 (0~1,000mg/dl) 측정되는 최소형 측정기이다.

은행 신용카드 할부 판매
※주부저울, 체중기, 혈압기 등

■제조원: **DIC Kyoto DAIICHI** Kagaku Co., Ltd.

■판매원: **정우양행**

☎ 서울 276-0277 · 부산 42-8193 · 대구 623-8511
276-0278 · 276-0285

당신가족의 건강은?

SHARP

수입 완제품

국내유일

샤프 컴퓨터 전자동합기계

■MB-800

■MB-600A

- 가압대 자동광학, 수축 원터치 Key
- 최고혈의 실증 Key
- 맥박 측정 기능

당뇨신문

“소망”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로 연락바랍니다.

보내실곳: **대한당뇨협회**

서울·중구 을지로 3가 295-4 양지빌딩 201호
TEL: 265-9822